

# 신용대출 금리 V자 반등 예고... 2금융 내몰리는 중신용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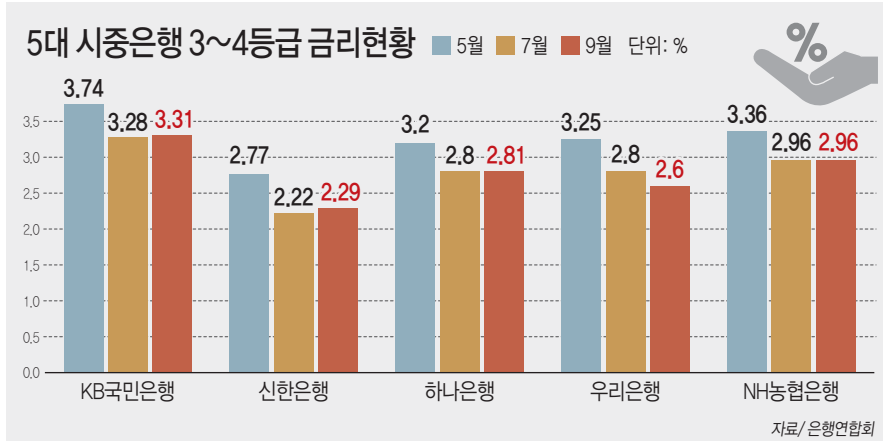
## 금융 이슈리포트

하락세 신용대출금리 오름세 전환 은행들 연휴 이후부터 한도 하향 3~4등급, 7~8등급 적용금리 올라 저축銀·카드사로 수요 이동 우려

지속적으로 하락했던 신용대출 금리가 오름세로 돌아섰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으로 인한 생활자금과 주식·부동산 등 투자용 자금 수요가 더해지며 가계대출이 늘어난 데 따른 조치다. 은행들은 추석 연휴 이후부터 한도를 낮추고, 우대금리를 축소해 신용대출 수요를 줄일 방침이다.

4일 은행연합회에 따르면 KB국민·신한·하나·우리·NH농협 등 5대 시중은행의 신용대출 금리가 반등세를 보이고 있다. 특히 3~4등급과 7~8등급인 중·저신용등급의 적용금리가 올랐다.

◆은행, 신용대출 금리 높이고 한도 축소 KB국민은행을 보면 3~4등급의 대출금리가 지난 5월 3.74%에서 6월과 7월 각각 3.56%, 3.28%로 떨어지다 9월 3.31%로 올랐다. 7~8등급은 5월 9.37%의 대출금리에서 8월 8.80%까지 감소



하다 9월 9.40%를 기록해 5월보다 더 오른 것으로 나타났다.

신한은행의 3~4등급 대출금리도 지난 5월 2.77% 대출금리가 지난 8월 2.22%까지 낮아지다 지난달 2.29%로 반등했다. 7~8등급의 대출금리는 5월 4.67%에서 지난 6월 4.19%로 떨어지다 9월 4.43%로 올랐다.

하나은행도 3~4등급 대출금리가 8월 2.80%에서 9월 2.81%로 올랐고, 7~8등급도 8월 7.47%에서 7.51%로 0.04% 포인트 올랐다. NH농협은행의 3~4등급과 7~8등급의 대출금리도 각각 2.95%, 5.48%에서 0.01%포인트 오른 2.96%, 5.49%로 집계됐다.

이 같은 움직임은 금융당국이 은행에 신용대출 속도 조절을 요구하면서 나타난 것으로 풀이된다. 통상 은행은 기본금리(시장금리)에 가산금리(영업비용 반영)와 가감조정금리(우대금리)를 적용해 최종 대출금리를 결정한다. 은행들이 가감조정금리 폭을 축소하는 방향으로 대응하고 있다는 분석이다.

KB국민은행은 지난달 일부 신용대출에 한해 우대금리를 축소하는 방법으로 실질 대출금리를 0.10~0.5%포인트 올렸다. 우리은행도 '우리주거래 직장인대출' 금리우대 조건 일부를 삭제하고, 최대 우대금리를 1.0%에서 0.6%로 낮췄다.

여기에 은행들은 고신용 등급에 한해

한도를 낮추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고신용등급의 거액 신용대출의 경우 생활자금으로 쓰일 가능성이 낮기 때문에 핀셋형으로 한도를 낮춰 신용대출 증가 폭을 낮추겠다는 설명이다.

KB국민은행은 지난달 말부터 의료인, 법조인 등 전문직 대상 신용대출 한도를 현행 최대 4억원에서 2억원으로 낮췄다. 일반 직장인 대상 신용대출 한도는 최고 3억원에서 2억원으로, 비대면 신용대출 한도는 3억원에서 1억 5000만원으로 조정했다.

은행 관계자는 "영업점에서 제공하던 지점장 우대금리를 제한하고, 비대면으로 신청할 때 주된 우대금리를 일부 줄이고 있다"며 "추석 연휴 직후 대다수 은행들이 신용대출 상품 금리를 높이고 한도는 줄일 것"이라고 말했다.

◆풍선포로 제2금융권 대출 몰리나 다만 은행들이 대출금리를 올리기 시작하면 중금리 대출을 이용할 수 있는 저소득 중신용자들이 제2금융권으로 밀려날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중금리 대출은 소득이나 신용등급이 부족해 고금리의 대출을 이용해야 하는 중·저신용자(4~10등급)를 대상으로 4~10%대 대출금리로 자금을 빌려주는 상

품을 말한다.

실제로 은행연합회에 따르면 5대 시중은행의 신용대출 중 중금리 대출 비중은 9월 기준(8월 취급된 대출 기준) 평균 7.56%로 집계됐다. 지난 5월(13.78%)과 비교해 절반수준이다.

KB국민은행은 지난 5월 중금리 대출비중이 19%를 차지하다 9월 10.8%로 8.2%포인트 감소했다. 같은 기간 신한은행은 11.6%에서 6.8%로, 하나은행은 14.3%에서 7.9%로, 우리은행은 12.4%에서 6.4%로 감소했다.

코로나19로 정책금융상품이 공급된 이후에도 지속적으로 감소하는 것으로 보아 은행에서 대출을 거절당한 차주들이 저축은행, 카드사 등 제2금융권으로 이동할 수 있다는 설명이다.

한국은행 경제통계시스템에 따르면 지난 7월 말 기준 저축은행의 대출잔액은 70조6117억원이다. 저축은행 대출잔액이 가장 많았던 지난 2010년 5월 65조7541억원과 비교해 4조8576억원 증가했다. 특히 이들의 대출잔액은 코로나19로 인해 급증했다. 올해 1~8월 사이 대출잔액은 5조482억원 증가해 전년(2조2436억원)과 비교해 2배 이상 증가했다. /나누리 기자 yul115@metroseoul.co.kr

## 대면영업 타격에 짐사는 카드모집인... 남은 1만명도 위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여파로 대면 영업이 어려워진 가운데 카드 모집인 수가 1만명선으로 감소했다. 이에 대응해 카드사들은 온라인 전용카드 출시, 온라인을 통한 신규 발급 등 비대면 채널 확대에 나서고 있다.

4일 카드업계에 따르면 지난 8월 기준 신한·삼성·KB국민·우리·현대·롯데·하나카드 등 7개 카드전업사의 신용카드 모집인수는 1만655명으로 나타났다. 이는 1만1382명을 기록한 지난해 말보다 727명(-6.39%) 감소한 수치다. 지난 6월까지만 하더라도 1만1703명으로 다소 증가하는 모습을 보였지만 두 달 새에 다시 하락한 것이다.

업계에서는 카드 모집인 감소의 원인으로 코로나19로 인한 대면 영업의 어려움을 지목한다.

한 카드업계 관계자는 "사람이 많이 모이는 곳에서营业을 진행하는 카드모집인 영업 특성상, 대면영업이 어려워

코로나19에 대면영업 사실상 '셋다운' 1년간 700명 넘게 줄어 1만여 명 남아 카드사는 온라인전용 등 비대면 주력 온라인 확대에 모집인 감소 지속 전망



진 요즘은 사실상 셋다운(일시정지) 상태에 가깝다"고 전했다.

또 다른 카드업계 관계자는 "카드사에서 줄어든 카드모집 수당에 대한 소득을 일부보전하는 등의 지원책을 마련했지만 코로나19가 장기화하면서 영업에 어려움을 느끼며 카드모집인을 그만 두는 경우가 증가하고 있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비대면발급이 가속화하는 가운데 대면영업을 중심으로 한 카드모집인 감소세가 더욱 심화할 전망이다. 지난해

26.6% 수준에 머물렀던 온라인 신용카드 발급 비중은 올 상반기 34.5%로 크게 늘어 반년 만에 30% 가량 급증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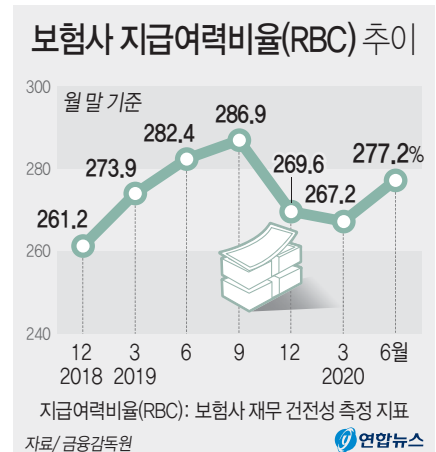
카드사에서도 비대면 채널 강화를 위해 온라인 발급 전용카드 출시, 발급 채널 리뉴얼 등을 진행하고 있다. NH농협카드사는 온라인발급 전용상품 '올바른 플렉스카드'를 출시했다. 뿐만 아니라 올해 들어 신한카드사는 '에이(Yay)카드', KB국민카드사는 'KB 마이핏카드' 등을 출시하면서 온라인 발급신청뿐

아니라 실물 카드 없는 모바일전용 카드를 선보였다. 또한 현대카드는 지난 8월 모바일 앱 3.0을 '원스톱 카드신청' 서비스를 강화했다. 앱을 통해 카드를 신청하면 30초 이내에 발급 심사가 완료되며 즉시 발급이 가능해졌다.

다만 비대면 채널 강화 속에서도 오프라인 카드 모집인이 1만명 아래로는 떨어지지 않을 것이라는 의견도 제기된다.

한 카드사 관계자는 "지난 2016년부터 꾸준히 감소해 오다가 감소세가 많이 줄면서 1만명 수준에서 등락을 반복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며 "오프라인으로 발급한 카드의 경우, 온라인 전용카드와 비교했을 때 지속적으로 카드를 사용하는 유지율이 상대적으로 높은 장점이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각사별로 정책과 전략은 다를 수 있으나 향후에도 여전히 중요한 하나의 채널로 유지할 것으로 예측된다"고 덧붙였다.

/이영석 기자 ysl@



## 보험사 RBC비율 277.2% 전분기 대비 10%p 올라

보험사들의 재무건전성이 개선된 것으로 나타났다.

4일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지난 6월 말 기준 보험회사의 RBC비율(가용자본/요구자본)은 277.2%로 3월 말 대비 10.0%포인트 상승했다.

RBC비율은 보험회사 재무건전성을 측정하는 지표다. 보험업법에서 100% 이상을 유지토록 규정하고 있다.

가용자본은 추가회복과 시장금리 하락으로 11조4000억원이 늘었다. 가용자본은 보험사의 각종 리스크로 인한 손실금액을 보전할 수 있는 자본량을 말한다.

요구자본은 퇴직연금의 신용·시장위험액 추가 반영과 운용자산 증가 등으로 2조1000억원 증가했다. 요구자본은 보험사에 내재된 각종 리스크가 현실화될 경우의 손실금액을 말한다.

금융감독원은 "보험사 RBC비율은 보험금 지급의무 이행을 위한 기준인 100%를 크게 상회한다"며 "다만 향후 RBC비율 취약 등이 우려되는 경우 위기상황분석 강화 및 자본확충 등을 통해 선제적으로 재무건전성을 제고토록 감독해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안상미 기자 smahn1@

## 한화생명 "보험교육도 쌍방향 화상강의로"

200명 참여, 비대면 시스템 도입

한화생명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으로 비대면 문화가 확산함에 따라 양방향 소통이 가능한 실시간 화상강의(Live Edu) 시스템을 도입한다.

이번에 도입된 시스템은 디지털 기반 방식으로 설계돼 스마트 학습 경험을 제공하며, 비대면 교육 솔루션으로 최대 200명까지 동시에 참여할 수 있다.

화상강의 시스템은 강사 혼자 묻고 답하는 형태의 원격 교육 방식에서 탈피해 쌍방향 소통이 가능하다.

오프라인 교육장에서 강사가 강의를 진행하고 교육장 내에서 교육생들과 토론을 진행하면, 온라인 학습자도 이를 보고 의견을 낼 수 있다. 강사와 온·오프라인 교육생 간 상호작용이 가능하다는 설명이다.

이경우 원거리 근무, 육아 문제로 집합 교육을 받기 어려웠던 학습자도 연

제 어디서나 양질의 강의를 온라인으로 시청할 수 있다.

한화생명은 강사 추적 카메라를 활용, 강의 자료와 판서 영상을 대형스크린을 통해 실시간으로 공유하며 학습자의 영상도 스크린을 통해 교육장에 송출한다. 강의 도중 실시간 퀴즈와 설문 및 이벤트도 진행해 온라인 학습자의 적극적인 참여를 유도, 비대면 교육 시 수업 몰입도가 떨어지는 점을 보완했다.

변준균 라이프파크 연수팀장은 4일 "보험 영업 교육이 대면 방식에서만 해야 한다는 고정 관념에서 탈피해 신개념 교육 인프라를 구축했다는 데 의의



한화생명이 실시간 화상강의(Live Edu) 시스템을 도입해 눈길을 끌고 있다. /한화생명

가 있다"라며 "코로나19 장기화로 온전한 교육과 커뮤니케이션이 이뤄지지 못하는 영업 현장의 고민을 해결할 수 있게 됐다"고 말했다. /나누리 기자 yul115@